

2022 OPEN! 12.

싸울 힘과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 가장 중요한 기도

주기도문은 가장 중요한 기도이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마태복음 6:10절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에게 위의 '사명'이 주어진다. 명심하라.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분명하다.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그래서 제자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교회의 본질도 그와 같다. 교회는 같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

누가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다. 즉, '아들'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진짜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가짜는 그렇지 않다. 결국 '자기'이다.

2.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은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반응하여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따라가는지는 몰랐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다. 십자가를 지셔서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순간은, 그들 안에 있는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이다. "아~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었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정렬되는 순간이다. 그 순간 깨어나는 것이다. 그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가? 이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사명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순간, 우리 앞에 '사도행전'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 사명을 발견한 교회에게 '사도행전'의 문이 열리게 된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단순하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다. **복잡하면 결정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이다.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착각하지 마라. 순종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다. 충성된 종에게 주어진 하늘의 성품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방법을 보지 않고, 방법을 만드는 사람을 본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와 믿음'이다.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셋째는, 사명이 분명한 사람

사명이 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당할 수 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의 속사람은 건강한다. 좋은 자존감이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교로 오는 수치심도 없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없기에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다. 자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일비일희하지 않는다. 견고하다.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인생에 개입하신다. 그 예를 들어보자.

(1)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

[사무엘상 16:13]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 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 순간이 놀라운 순간이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다. 그때부터 다윗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을 믿는가? 그 예가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국가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결심이 아니다. 다윗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뿐이다. 다윗의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다윗이 한 일은 골리앗과의 전투에 반응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다. 엄청난 불가능의 벽에 서는 것이다. 다윗은 반응하고 앞으로 나아가 골리앗 앞에 섰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다. 다윗의 작은 재능에 기름 부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알아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힘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다. 싸울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터에 세우지 않으신다. 격전지로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보내시지만 또한 이길 힘도 주시는 분이시다.

(2) 요셉

요셉의 부르심도 분명하다. 흉년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았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리는 고난을 겪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다. 갈 곳도 없다.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 열심히 때문에 모함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다. 그곳에서 요셉은 함께 있었던 술과 떡을 맡았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며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등용되어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다. 흉년과 풍년의 해석을 통해 애굽이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다. 이 사건 하나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다.

[창세기 41:40-41] 40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41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사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인생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할 모든 것을 주신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하늘의 열쇠가 있는 사람이다. **'단번에 한 번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다. 세상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에게 요셉에게 있었던 '단번에 한 번에'의 사건은 일상이다.**

(3) 찢어지는 그물, 찢어지지 않는 그물

[누가복음 5: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한복음 21: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소명을 처음 받았던 제자들의 그물은 기적을 담아내지 못하고 찢어졌다. 그러나 두 번째 사명 앞에 다시 선 제자들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은 결국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주신다. 하늘의 기적을 받아내고 감당할 수 있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주신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찢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 * **다니엘** - 감당할 수 있는 지위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
- * **제자들** -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셨다.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 * **요나** - 니느웨의 회개를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주셨다.

(4) 진동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만든 안정감은 결국 하나님이 진동으로 다 흔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동이 있는가? 거품을 빼시고 진짜를 남기시는 과정이다.

[히브리서 12:26-28] 26 그 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27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8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시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다(28절). 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동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아있는 사람이다 (27절). 흔들림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과, 지혜와, 부와, 명철과, 이 땅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3. 충성된 한 걸음

다윗과 요셉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청지기의 교훈에서 배워보자. 묵묵하게 자신의 삶에서 물뭍돌을 준비한 그 사람에게 사무엘이 나타나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 충성은 매일의 성실함이다. 충성으로 달란트(소명)를 맡은 자에게 더 큰일이 맡겨진다.